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팽호낙

2022년 8월

#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지도교수 김 주 경

팽 호 낙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팽호낙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영훈   
위 원 김 형아   
위 원 김주경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8월

# 목 차

<b>I. 서 론</b>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절 연구의 내용 .....	2
제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제 4절 연구의 흐름도 .....	4
<b>II. 이론적 배경</b> .....	5
제 1절 두뇌유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5
제 2절 유학생의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7
1. 경제적 요인 .....	8
2. 정책적 요인 .....	9
3. 가족적 요인 .....	11
4. 문화적 요인 .....	12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	14
<b>III. 연구의 설계</b> .....	17
제 1절 연구모형의 설계 .....	17
1. 연구모형 설정 .....	17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특성 .....	18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	20
1. 연구의 방법 .....	20
2. 측정항목의 구성 .....	20

<b>IV. 실증분석 결과</b> .....	<b>22</b>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	22
제 2절 교차분석 결과 .....	26
1. 성별기준 교차분석 결과 .....	26
2. 나이기준 교차분석 결과 .....	29
3. 학업상태 기준 교차분석 결과 .....	34
4. 유학기간기준 교차분석 결과 .....	40
5. 유학국가기준 교차분석 결과 .....	45
제 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	52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52
2. 다중회귀분석 결과 .....	55
<b>V. 결론</b> .....	<b>63</b>
제 1절 연구의 요약 .....	63
제 2절 정책제언 .....	66
<b>참고문헌</b> .....	<b>69</b>
1. 국내 문헌 .....	69
2. 해외 문헌 .....	71
<b>ABSTRACT</b> .....	<b>3</b>
<b>【부록】</b> .....	<b>4</b>

## 표 목 차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	19
<표 3-2> 측정항목 .....	21
<표 4-1> ‘귀국의사’ 설문결과 .....	23
<표 4-2> ‘경제적 요인’ 설문결과 .....	23
<표 4-3> ‘정책적 요인’ 설문결과 .....	24
<표 4-4> ‘가족적 요인’ 설문결과 .....	25
<표 4-5> ‘문화적 요인’ 설문결과 .....	26
<표 4-6> 귀국의사와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	27
<표 4-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	28
<표 4-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	28
<표 4-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	29
<표 4-1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	30
<표 4-11> 귀국의사와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	31
<표 4-12>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	32
<표 4-13>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	33
<표 4-14>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	34
<표 4-15>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	35
<표 4-16> 귀국의사와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	36
<표 4-1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	37
<표 4-1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	38
<표 4-1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	39
<표 4-2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	40
<표 4-21> 귀국의사와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	41

<표 4-22>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	44
<표 4-23>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	45
<표 4-24>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	46
<표 4-25>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	47
<표 4-26> 귀국 의사와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	49
<표 4-2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	50
<표 4-2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	51
<표 4-2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	53
<표 4-3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	54
<표 4-31> 신뢰성 검증결과 .....	56
<표 4-32>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57
<표 4-33> 상관관계 분석 결과 .....	59
<표 4-34> 다중회귀분석 결과 .....	59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4
<그림 3-1> 연구분석 모형 .....	17



## 국 문 초 록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재 교류도 활발해졌다. 우수한 유학자가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본국이 아닌 상주 유학 국가인 경우가 많은데, 중국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 의사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내 우수 인재 유치 및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후 귀국에 대한 생각은 유학 전이 유학 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과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학생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과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나 유교적은 문화 형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으로 현지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에 의한 차별은 인종차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중국 유학생, 인재 영입, 두뇌 유출

# I. 서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이 발전은 인류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인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팅을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 간 경계와 영역을 허물었으며, 인재교류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현재 세계는 우수한 인재들이 자국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유학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타 국가 유학을 통해 선진화된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익히고 배워 자국으로 돌아와 이러한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화의 다양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가 해외 유학으로 나간 후 자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을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유학국가에 상주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에서는 유학생들을 자국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유학생 귀국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중국의 경우 많은 도시가 심각한 두뇌유출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두뇌유출에 대한 논의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해외 인재 채용 플랫폼인 로킨이(Lockin) 발표한 '2021 중국 해외 인재 직업 발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인 해외 고교 졸업생은 8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매우 많으며, 이러한 인재들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을 하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왜 귀국을 하지 않는지, 귀국할 의향이 있다면 무슨 이유에서 귀국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적 지원만으로 해외 유학생들이 귀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요인들이 귀국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장기적 차원의 중국 내 우수인재 유치 및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의사가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지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인재유출 및 유학생의 귀국요인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의 귀국요인을 살펴보고, 중국 유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귀국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 세계 각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중국으로 귀국하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2019년 말 현재 약 70만명의 중국학생들이 해외에서 유학중에 있으며, 이러한 유학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 약 78%로 약 22%의 인력이 해외에 두뇌유출되고 있다(김혜련, 2020). 이러한 귀국비율은 높은 비율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비율일 수도 있다. 해외에서 공부한 우수한 인재가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만큼 중국의 우수인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왜 귀국을 하려고 하는지? 반대로 왜 중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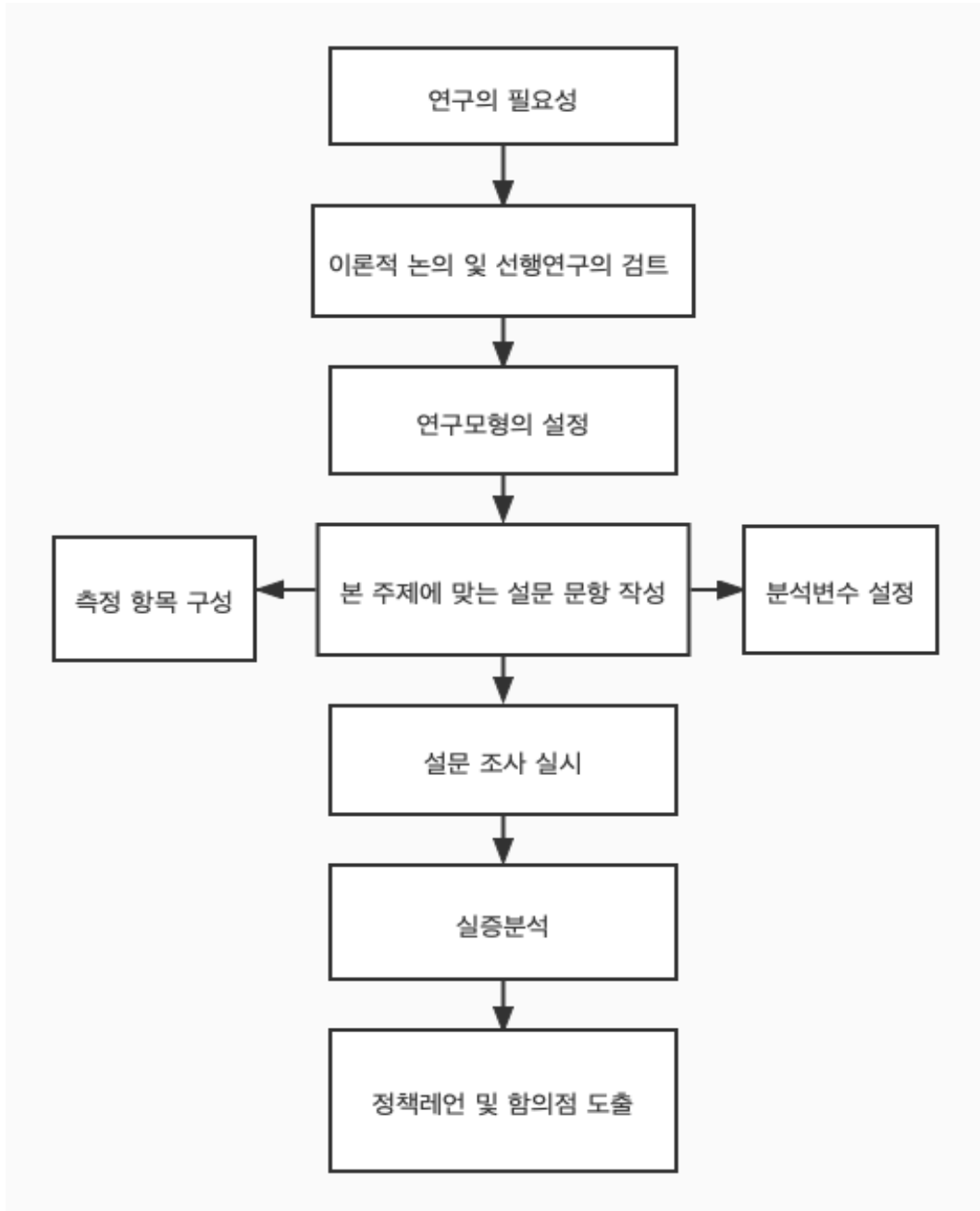
### 제 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호주, 유럽, 한국, 일본 등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귀국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전 세계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부 국가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올바른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국가 간 귀국의사의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우선,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이론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로 정량적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귀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 기초통계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 제 4절 연구의 흐름도

<그림 1-1> 연구 흐름도



## Ⅱ. 이론적 배경

### 제 1절 두뇌유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유학(留學)이란 머무를 류(留)와 배울 학(學)이 결합된 단어로 외국의 학문·기술 등을 배우기 위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머무르며 공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설명하면,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 청나라 때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출양(出洋)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지금의 유학을 출양유학(出洋遊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유학생(留學生)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당나라 때이다. 그 당시에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참가하는 사람을 유학생이라고 칭하였다.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러서는 유학생은 단순히 외국과의 교류에 참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체류하며 공부하는 학생을 의미하게 되었다(장준, 2019).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유학생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 공과 또는 자비로 유학을 떠나 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받아야 한다. 둘째, 국내에서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 명칭의 보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 대학이나 과학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방문학자·이수자 및 협력 연구자 등이어야 한다. 넷째, 기술 전문인정 인력이어야 한다(鄭偉, 2004).

중국의 유학생은 역사에서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 초 유학 후 귀국한 과학자들은 중국 사회주의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원천이 되었고, 1978년 이후 귀국한 유학생들은 세계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 중국이 과학 연구를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1960년대 두뇌유출(Brain Drain)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다. 두뇌유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던 것을 설명하며 사용된 단어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두뇌유출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선진기술을 배운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오더라도 다른 이유로 인하여 다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뇌유출은 국가의 고급인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적 자원이 유출되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두뇌유출은 고급인력의 순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박성면, 2018; 송하중 외, 2004).

두뇌유출이란 유학생들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지 않고 교육을 받았던 나라에서 활동을 하거나, 다른 외국으로 이동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권기현, 2002). 이는 국가가 고급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지식인이나 과학기술자들을 유인하는 두뇌유출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이다. 그들이 머무를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성과 정치활동의 자유 등이 그들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대에, 중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었다. 따라서 이 시기 대한민국과 중국의 지식인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이주를 하였었다(송하중 외, 2004). 베트남의 경우, 월남전이 끝난 1970년대 후반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고급 인적자원들이 미국 등으로 대거 망명하는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박성면, 2018).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고급인력들에게는 보다 좋은 근무조건과 환경이 제시되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자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고급인력들에게 이러한 환경과 기회는 제공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럴 경우, 고급인력들은 처우가 좋은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과 대만의 인재들이 미국에 남아서 일을 하는 인원의 수가 감소하였었다. 이는 당시 한국과 대만의 경

제적인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1990년대 중후반 경제위기를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의 고급인력들은 해외로 다수 유출되었던 사례도 있다(윤병섭·이홍재, 2004).

세 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이다. 개인적인 요인에는 본인의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들어 개인적인 요인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성면, 2018).

두뇌유출은 자국의 교육 투자에 대한 유출, 유학생의 교육비와 생활비에 따른 외화 유출 등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내 적체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다른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뇌유출은 국가경쟁력 유지의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들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뇌유출의 원인을 판단할 때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시 되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윤병섭·이홍재, 2004). 최근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조되면서 유학생도 과거와 달리 두뇌유출보다는 자국으로 귀국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학 후 자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 제 2절 유학생의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유학생생활을 하며 학습을 한 유학생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유학생생활을 하며 거주지가 바뀌고,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가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적응하였던 것들을 모두 포



기해야 하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되기 때문이다(슈쿠로바,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이 귀국 결정을 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의 귀국 결정요인을 크게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적 요인

유학생은 유학을 통하여 외국에 영주하거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을 희망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학생은 귀국하였을 때, 취업을 하기 어렵거나, 외국보다 처우가 낮은 것은 유학생의 미귀국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유학을 한 고급인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재의 유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물적 자원이 유출된 것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귀국 후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보다 나은 근무조건과 환경을 갖춘 외국에 체류하는 것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유학생의 귀국 열풍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 국가로 유학을 간뒤, 현지에서 취업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다시 중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귀국 열풍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이라는 큰 이유가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으며, GDP도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과거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취업하여 받는 연봉을 이제는 중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귀국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다(김혜련, 2020).

또한 현재 중국의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도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노동집약형의 산업구조로 저렴한 임금의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최근 중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점차 자본집약형 산업과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첨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유학을 한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게 되어 유치에 힘을 쏟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중국인의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외에서 유학을 한 인재에 대한 수요는 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김혜련, 2020).

국가에서는 유학생 발생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유학 비용은 정부의 외환 보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학비와 생활비 등 유학에 대한 송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묶으려고 노력해왔다(장영민, 2021).

## 2. 정책적 요인

한국의 유학 정책은 1949년 7월 외교부에서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 시작이다. 이러한 담화는 과거 미군정 시절에 무계획적으로 유학이 실시되었다는 평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담화에서는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기본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영어 실력을 제시하며, 영어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재정과 품행적으로도 준비된 인재들에게 유학을 허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학 중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인의 위신을 손상시키고, 학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국과의 협의를 통해 귀국을 시키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장영민, 2021).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인들의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한국은 그 당시 심각한 두뇌유출 국가 중 하나로 손 꼽혔었다.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 유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애국심에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호소로는 유학생들이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았다. 이에 1958년 문교부에서는 대사관의 허가를 얻지 않고 4년 이상 체류하는 유학생에게는 달러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였으며, 귀국한 유학생들에게는 취업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귀국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1960년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귀국하는 유학생의 비율은 15%정도에 불과했다(슈쿠로바, 2021; 장영민, 2021). 정부의 정책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 정부에서도 자국 내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학생의 입국이 늘어날 경우,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1966년 설립하여 해외 과학기술자를 국내에 유치하도록 하였다. 국립대 정교수의 2~3배 이상의 보수와 주택을 제공하며, 충분한 보수와 처우를 보장하였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었다. 럭키 골드 스타 그룹에서는 1989년 200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었다. 이에 1980년대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의 2/3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슈쿠로바, 2021).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후 꾸준히 해외 이주가 증가하여 왔다. 같은 해 중국은 12월 미국으로 52명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것이 중국의 유학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해외 이주의 확대와 더불어 유학생들의 해외 체류 비율도 높아지면서, 중국은 두뇌유출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에서는 두뇌유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1980년대부터 유학생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유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귀환 유치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중국인 유학생은 높은 귀국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귀국 붐’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이자 귀환유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다(김혜련, 2020).

해외 우수 유학생의 귀국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에서는 다양한 유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인계획’이다. 백인계

획은 젊은 학계 지도자를 유치하고 육성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백인계획을 통해 만 40세 이하의 유능한 해외 인재를 귀국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춘취계획’은 해외 유학 인재가 귀국 후 중국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방학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수뿐만 아니라, 주택,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와 리자칭 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장강학자 장려계획’은 일종의 교수특별 초빙제도이다. 우수한 학자들에게 대학의 학문적 지도자가 되어 팀 그룹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장강학자 장려계획’은 단순히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대학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학인원 귀국창업지원계획’은 유학생의 귀국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해외 우수 유학생이 귀국하여 창업을 한다면, 창업단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 관공청에서 운영하는 ‘천인계획’도 있다. 천인계획은 세계적인 학자와 교수 1천명을 중국의 국립대학교나 연구소 등에 채용하여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고 있다(슈쿠로바, 2021). 중국은 단순히 유학생을 귀국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가족적 요인

유학생이 유학을 하며, 체류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국가의 생활방식을 선호하게 되면, 귀국의사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자녀의 교육 문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한다. 유학기간 자녀를 출산할 경우, 그 자녀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가 익숙해 진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귀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으로 남게 된다.

가족에 대한 문화 또한 귀국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혼을 중시하는 문화, 자식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는 문화가 강한 국가의 경우, 유학을 마치고 현지에서 더 체류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된다(슈쿠로바, 2021).

허대녕 외(2014)는 미국 과학기술분야 Top 5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귀국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유학생은 (예비) 배우자가 미국의 생활보다 한국의 생활을 선호하는 경우 귀국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의 유학생은 현지에서 배우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 귀국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가족과 함께 유학국가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모국에 체류할 때보다 사회 활동이 용이하지 못하여 배우자의 선호에 따라 귀국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한국의 자녀교육환경을 미국보다 선호하는 경우에도 귀국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체류할 경우, 별도로 영어교육을 해야하는 등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교육과 진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여, 이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가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체류할 경우, 영어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영어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과 진학에 대한 경쟁이 덜 한편이며, 오히려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에 진학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향후 한국에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귀국에 대한 고민으로 남는다.

#### 4. 문화적 요인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체류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한다. 그 속에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겪게 되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발생하게 된다(김혜련, 2020). 특히, 언어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의사소통 문제,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다른 것에 기인한 음식 문제 등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유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필요하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은 개인별로 다양하게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유학국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귀국을 결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슈쿠로바, 2021).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생이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기간은 3~5년 정도이다. 그 기간 동안 유학생은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유학국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현지 언어 습득을 열심히 하고 문화를 습득하며 점차 그 나라에 적응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졸업 이후 유학국가에 남아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유학 기간 동안 유학생의 현지 언어적인 능력은 상승하지만, 현지인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유학생이 귀국을 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언어 능력과 해외 경험을 갖춘 유학생은 모국의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된다(김혜련, 2020).

유학지에서의 차별 또한 귀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종차별이 대표적인 차별에 해당된다. 다른 차별로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별도 존재한다. 서구의 선진국에 온 유학생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나라의 유학생에 대한 차별 또한 아직 존재하고 있다.

향수병도 귀국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에서 보내는 기간동안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에 대한 생각과 가족들 지인들과의 단절감으로 인하여 향수병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유학을 마치고 또는 유학을 마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도 귀국 의향에 영향을 준다. 허대녕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유학국가의 조직문화보다 모국의 조직문화를 선호할 경우, 유학생은 유학 후 현지에 남아 취업을 생각하기보다는 귀국을 결심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 성향에 따른 것으로 동양권 국가의 경우 업무 이외의 조직 단합 행사들이 많고, 직장내 상하관계가 명확한 반면에, 서구권 국가의 경우 업무 이외의 행사는 없는

편이고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의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제 3절 선행연구 검토

유학이라는 것은 유학생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심리적 비용이 소모되는 선택이다. 유학이라는 선택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현지에서의 적응과 성장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김소연 외, 2014)

유학생들의 귀국의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송하중 외(2004)는 지식정보사회에서 고도로 숙련된 고급인력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의 두뇌유출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해외 인재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외유출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두뇌유출의 문제를 두뇌순환의 관점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두뇌순환의 효과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윤병섭·이홍재(2006) 또한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지식기반사회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고급인력의 이동 현황은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고급 인력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과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해 그들에게 내재적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고급인력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서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확대하고 그들의 연구를 흡수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유학생의 귀국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고급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허대녕 외(2014) 연구에서는 미국 과학기술분야 Top5 대학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귀국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잠재적인 요인과 가설을 도출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유학생들은 한국보다 미국의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우수한 일자리나, 근무환경도 한국보다 미국이 우수하다고 보았으나, 그 외의 조직문화, (예비) 배우자의 의향, 자녀교육환경 등이 귀국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작용한다는 결론이 도출하였다.

박성면(2018)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요인을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인재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고급인력 해외유출의 원인은 근무환경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에 있다고 나타났다. 연구환경의 측면에서 한국의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환경과 연구의 자율성 부족이 인재유출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근무환경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급인력을 우대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 이유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있다. 김혜련(2020)은 세계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인 중국의 유학생 실태와 귀국 현황을 분석하고, 최근 중국 내에서 유학생들 귀국 붐이 일어나는 원인을 국내외 정세, 정부의 정책,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과거 중국은 두뇌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있었으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유학생들이 귀국하게 되었고,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귀국 장려 정책으로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 또한 귀국을 한다고 보았다. 2018년 중국의 유학생 귀국률은 84.46%로 대규모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유학생들의 재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슈쿠로바(2021)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학원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인을 대상으로 우수인재의 모국귀환의 요인을 연구하였다. 슈쿠로바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고급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국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모국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투자 확대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발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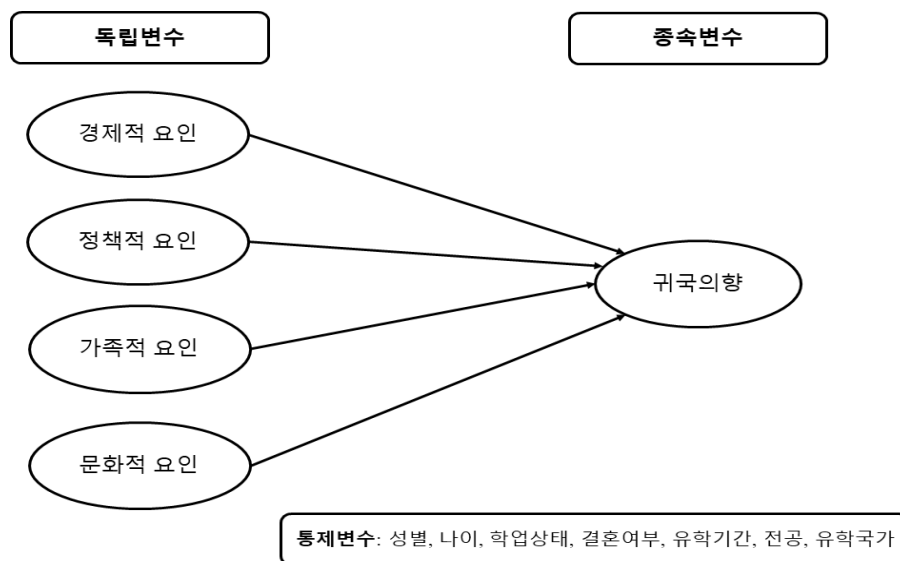
### Ⅲ. 연구의 설계

#### 제 1절 연구모형의 설계

#####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국 유학생들의 귀국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인구통계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유학 기간, 유학 국가 등이 귀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나이, 학업 상태, 결혼 여부, 유학 기간, 전공, 유학 국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분석 모형



## 2. 연구의 대상 및 표본특성

본 연구의 실증자료는 전 세계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학생의 귀국 영향요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분석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 작성을 완성 한 이후, 설문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2022년 4월 24-4월 26일 3일간 중국유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설문문항을 수정하였다.

사전 설문지 신뢰도 및 타당도 검토를 끝낸 후, 본 설문은 2022년 4월 26일부터 2022년 5월 7일까지 12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1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1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성은 159명(51.1%), 여성은 152명(48.9%)으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140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이상은 11명(3.5%)으로 가장 적었다. 결혼여부의 경우 대부분이 미혼이었고, 기혼자 10명(3.2%)이 응답하였다.<sup>1)</sup> 유학시 전공분야에 대한 설문결과, 인문사회계열은 69명(2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학계열 60명(19.3%), 경영계열 55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학중인 국가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이 84명(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39명(12.5%), 일본은 38명(12.2%)순으로 나타났다.<sup>2)</sup> 유학기간은 1~3년이 123명(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년이 129명(41.5%)으로 많았다.

- 
- 1)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연령이 16-18세 이고(만 나이기준) 이후 유학을 바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세 이하 유학생들의 응답비율이 높음
  - 2) 유학국가 대상 선정의 경우, 중국에서 발간하는 2021中国留学白皮书(2021)에서 중국유학생이 가장 많이 유학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음

<표 3-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N=311)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남자	159	51.10%	혼인	미혼	301	96.5%
	여자	152	48.90%		기혼	10	3.2%
학력	대학교 재학	201	64.6%	유학 첫경험 나이	20세 이하	218	70.1%
	대학교 졸업	13	4.20%		20-25세	68	21.9%
	석사 재학	50	16.1%		25-30세	22	7.1%
	석사 졸업	16	5.1%		30세 이상	3	1%
	박사 재학	13	4.2%	유학 기간	1년 이하	16	5.1%
	박사 졸업	10	3.2%		1-3년	123	39.5%
	기타	8	2.6%		3-5년	129	41.5%
나이	20세 미만	140	45%	5-10년	38	12.2%	
	20세 이상 25세 미만	97	31.2%	10년 이상	5	1.6%	
	25세 이상 30세 미만	63	20.3%	국가	한국	84	27.0%
	30세 이상	11	3.50%		영국	29	9.3%
전공	인문사회계열	69	22.2%		미국	39	12.5%
	자연과학계열	35	11.3%		호주	27	8.7%
	공학계열	60	19.3%		캐나다	23	7.4%
	예체능계열	36	11.6%		일본	38	12.2%
	의학/간호/수의/약학계열	27	8.7%		독일	17	5.5%
	교육계열	7	2.3%		싱가포르	23	7.4%
	법학계열	8	2.6%		프랑스	20	6.4%
	경영계열	55	17.7%		뉴질랜드	7	2.3%
	기타	14	4.5%	기타	4	1.3%	

##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측정항목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론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활용한 변수들의 경우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유학생들의 귀국의사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서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증분석을 위해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24를 활용하였다.

### 2. 측정항목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항목은 선행연구 및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5가지 요인변수와 15개의 관측변수를 설정하였다. 5개의 요인변수 중 귀국영향요인 변수의 경우,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경제적 요인은 2개 문항, 정책적 요인은 4개 문항, 가족적 요인은 2개 문항, 문화적 요인은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사전 설문검토를 통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이다.

설문문항의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①전혀 아니다 ~ ⑤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측정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측정항목

변수	변수명	측정항목
귀국의사 요인(3문항)	A1	1.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유학을 마친분 포함)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A2	2.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A3	3.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경제적 요인(2문항)	B3	1.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B4	2.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정책적 요인(4문항)	C1	1.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C2	2.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C4	3.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5	4.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적 요인(2문항)	D1	1.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D2	2.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문화적 요인 (4문항)	E1	1.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E2	2.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생활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
	E3	3.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E4	4. 나는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 IV. 실증분석 결과

### 제 1절 기초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기 전 각 항목별 기초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귀국 의사' 설문분석 결과(A항목)

첫 번째 질문으로 중국유학생들의 중국 귀국의사를 물어본 설문문항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유학 마친 후 귀국의사를 물어보았으며, 두 번째는 유학을 마친 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세 번째 질문의 경우 유학 전 유학을 마칠 경우 귀국할 의사를 물어보았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평균 3.83으로 나타났으며, 유학 후 바로 귀국의사에 대한 질문은 3.69로 나타났다. 유학 전 귀국의사에 대해서는 3.71로 유학 후 바로 귀국하려는 의사보다 유학 전에 귀국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항목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중국유학생들의 경우,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 ‘귀국의사’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A1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유학을 마친분 포함)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3.83	1.255	1	5
A2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3.69	1.313	1	5
A3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3.71	1.251	1	5

2) ‘경제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B항목)

경제적 요인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의 평균은 3.62로 나타났으며,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의 항목은 3.63으로 많은 유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경제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B1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3.62	1.436	1	5
B2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3.63	1.288	1	5

3) ‘정책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C항목)

정책적 요인의 경우 유학생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항목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의 항목이 3.47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 '정책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C1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3.72	1.219	1	5
C2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3.63	1.203	1	5
C4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64	1.254	1	5
C5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3.47	1.384	1	5

#### 4) '가족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D항목)

유학생의 경우 가족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귀국을 결심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족적 요인에 대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3.74로 나타났다.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는 4.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4> ‘가족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D1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3.74	1.213	1	5
D2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4.04	1.097	1	5

5) ‘문화적 요인’ 설문분석 결과(E항목)

문화적 요인의 경우 유학국가의 문화적 특성이 귀국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요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귀국의사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유학국가에서 인종차별이 있다’는 3.52로 인종차별은 당한 적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활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의 경우 3.05로 상대적으로 인종차별 보다는 종교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은 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의 경우 3.52로 나타났으며, ‘나는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의 경우 3.36으로 평균이상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표 4-5> ‘문화적 요인’ 설문결과

항 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E1	유학국가에서 인종차별이 있다	3.52	1.249	1	5
E2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회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	3.05	1.506	1	5
E3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3.52	1.231	1	5
E4	나는 유학생회를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3.36	1.285	1	5

## 제 2절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인 귀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위하여 통제변수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 교차분석의 기준은 ‘성별’, ‘나이’, ‘학업상태’, ‘유학기간’, ‘유학국가’의 5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성별기준 교차분석 결과

첫 번째 ‘귀국의사’와 관련한 3개의 문항을 성별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6> 귀국의사와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A1	A2	A3
남성	3.74	3.62	3.64
여성	3.91	3.75	3.78
합계	3.82	3.68	3.71

첫 번째 A1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남성은 3.74, 여성은 3.91로 여성이 남성보다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남성은 3.62, 여성은 3.75이다. 여성 유학이 끝나면 바로 중국으로 돌아갈 의향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남성 3.64, 여성 3.78로 응답 결과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성별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B3	B4
남성	3.50	3.50
여성	3.74	3.76
합계	3.62	3.63

첫 번째 B3 질문인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질문에 남성은 3.50, 여성은 3.74이다. 그래서 여성 유학생이 남성 유학생보다 유학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4 질문인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질문에 남성은 3.50이고 여성은 3.76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남성보다 여성 유학생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성별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C1	C2	C4	C5
남성	3.66	3.60	3.58	3.37
여성	3.77	3.65	3.70	3.56
합계	3.72	3.62	3.64	3.46

첫 번째 C1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남성은 3.66, 여성은 3.77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중앙정부가 제

공하는 지원정책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질문에 남성은 3.60, 여성은 3.65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가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4 질문인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질문에 남성은 3.58, 여성은 3.70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5 질문인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질문에 남성은 3.37, 여성은 3.56이었다. 중국 정부의 귀국 장려 정책이 여성 유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성별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D1	D2
남성	3.64	3.98
여성	3.82	4.10
합계	3.73	4.04

첫 번째 D1 질문인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질문에 남성은 3.64, 여성은 3.82로 나타났다. 여성이 중국에 돌아가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질문에 남성은 3.98, 여성은 4.10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중국에 있는 가족을 더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성별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성별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남성	3.47	3.01	3.40	3.31
여성	3.57	3.07	3.63	3.40
합계	3.52	3.04	3.51	3.36

첫 번째 E1 질문인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질문에 남성 3.47, 여성 3.57로 나타났다. 유학 기간 중 여성이 인종차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활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질문에 남성 3.01, 여성 3.07로 나타났다. 유학 기간 동안 종교 문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질문에 남성 3.40, 여성 3.63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유학 국가를 중국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E4 질문인 ‘나는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질문에 남성은 3.31, 여성은 3.40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외국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나이기준 교차분석 결과

첫 번째 ‘귀국의사’와 관련한 3개의 문항을 나이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표 4-11> 귀국의사와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A1	A2	A3
20세 미만	4.25	4.29	4.26
20세 이상 - 25세 미만	3.61	3.31	3.42
25세 이상 - 30세 미만	3.25	2.93	2.96
30세 이상	3.54	3.45	3.54
합계	3.82	3.68	3.71

첫 번째 A1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4.25,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61,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25, 30세 이상은 3.54로 나타났다. 유학이 끝난 뒤 귀국할 의사가 가장 강한 것은 20세 미만의 유학생이고, 가장 약한 것은 25세 이상 - 30세 미만의 유학생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4.29,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1,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93, 30세 이상은 3.45로 나타났다. 유학을 마친 뒤 바로 귀국하고 싶은 사람은 20세 미만 유학생이고, 의사가 가장 약한 것은 25세 이상 - 30세 미만의 유학생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20세 미만은 4.2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2,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96, 30세 이상은 3.54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유학생은 유학 전 ‘유학 끝나면 바로 귀국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고, 25세 이상 - 30세 미만이 가장 적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나이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2>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B3	B4
20세 미만	4.37	4.24
20세 이상 - 25세 미만	3.14	3.35
25세 이상 - 30세 미만	2.71	2.74
30세 이상	3.36	3.45
합계	3.62	3.63

첫 번째 B3 질문인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37,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4,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71, 30세 이상은 3.36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30대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4 질문인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24,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5,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74, 30세 이상은 3.45로 나타났다. 20세 이하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나이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3>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C1	C2	C4	C5
20세 미만	4.34	4.18	4.29	4.30
20세 이상 - 25세 미만	3.34	3.26	3.18	2.95
25세 이상 - 30세 미만	2.90	2.90	2.93	2.49
30세 이상	3.81	3.81	3.45	3.00
합계	3.72	3.81	3.45	3.00

첫 번째 C1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34,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34,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29, 30세 이상은 3.81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가장 인증하고,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18,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26,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90, 30세 이상은 3.81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에 가장 인증하고,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4 질문인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20,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18,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93, 30세 이상은 3.45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정부가 다양한 사회복지와 우대정책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복지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C5 질문인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30,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95, 25세 이상 - 30세 미만

은 2.49, 30세 이상은 3.00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려정책이 20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연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나이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4>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D1	D2
20세 미만	4.20	4.41
20세 이상 - 25세 미만	3.41	3.89
25세 이상 - 30세 미만	3.12	3.42
30세 이상	4.18	4.18
합계	3.73	4.04

첫 번째 D1 질문인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20,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41,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3.12, 30세 이상은 4.18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싶어 귀국했고 그 다음이 30세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41,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39,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17, 30세 이상은 3.09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은 중국에 있는 가족을 가장 그리워하는 반면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나이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5>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나이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20세 미만	4.23	4.16	4.32	4.19
20세 이상 - 25세 미만	2.92	2.14	3.00	2.78
25세 이상 - 30세 미만	2.87	2.11	2.66	2.55
30세 이상	3.45	2.18	2.72	2.45
합계	3.52	3.04	3.51	3.36

첫 번째 E1 질문인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23,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92,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87, 30세 이상은 3.45로 나타났다. 20세 미만 자신이 속한 유학국가에서 인종차별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가장 낮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회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16,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14,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11, 30세 이상은 2.18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유학생이 종교 문제로 유학생회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32,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3.00,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66, 30세 이상은 2.72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유학생이 유학 국가의 문화와 중국의 문화가 서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E4 질문인 ‘나는 유학생회를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질문에 20세 미만은 4.19, 20세 이상 - 25세 미만은 2.78, 25세 이상 - 30세 미만은 2.55, 30세 이상은 2.45로 나타났다. 20세 미만의 유학생이

외국인 친구와의 교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세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3. 학업상태 기준 교차분석 결과

첫 번째 ‘귀국의사’와 관련한 3개의 문항을 학업상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6> 귀국의사와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A1	A2	A3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4.15	4.05	4.06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4.00	4.00	3.84
대학원 석사 재학	2.58	2.42	2.50
대학원 석사 졸업	3.50	3.06	3.25
대학원 박사 재학	3.61	3.46	3.69
대학원 박사 졸업	3.90	3.40	3.50
기타	4.00	3.62	3.50
합계	3.82	3.68	3.71

첫 번째 A1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1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4.00, 대학원 석사 재학은 2.58, 대학원 석사 졸업은 3.50, 대학원 박사 재학은 3.61, 대학원 박사 졸업은 3.90, 기타는 4.00이다.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할 의사가 가장 큰 사람은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귀국 의사가 가장 낮은 사람은 석사 재학의 유학생인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4.00, 대학원 석사 재학은 2.42, 대학원 석사 졸업은 3.06, 대학원 박사 재학은 3.46, 대학원 박사 졸업은 3.40, 기타는 3.62이다. 유학을 마친 후 가장 빨리 귀국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당장 귀국 의사가 가장 낮은 사람은 석사 재학 중인 유학생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6,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84, 대학원 석사 재학은 2.50, 대학원 석사 졸업은 3.25, 대학원 박사 재학은 3.69, 대학원 박사 졸업은 3.50, 기타는 3.50로 나타났다. 유학 전 ‘유학 끝나고 바로 귀국’ 의사가 가장 높았던 대학 재학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의향이 가장 낮은 것은 석사 재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학업상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B3	B4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4.10	4.0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3.61	4.07
대학원 석사 재학	2.40	2.26
대학원 석사 졸업	2.56	2.50
대학원 박사 재학	2.46	3.15
대학원 박사 졸업	2.50	3.60
기타	4.37	3.87
합계	3.62	3.63

첫 번째 B3 질문인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10,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61, 대학원 석사 재학은 2.40, 대학원 석사 졸업은 2.56, 대학원 박사 재학은 2.50, 대학원 박사 졸업은 4.37, 기타는 3.62로 나타났다. 유학 기간 학비 등 아르바이트가 가장 적은 것은 석사과정 유학생이고 박사과정 유학생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4 질문인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4.07, 대학원 석사 재학은 2.26, 대학원 석사 졸업은 2.50, 대학원 박사 재학은 3.15, 대학원 박사 졸업은 3.60, 기타는 3.87로 나타났다.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장학금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비율은 석사과정 유학생이었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학업상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C1	C2	C4	C5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4.11	4.01	4.03	3.96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3.76	3.53	3.53	3.30
대학원 석사 재학	2.30	2.16	2.32	2.00
대학원 석사 졸업	3.68	3.50	3.50	3.00
대학원 박사 재학	3.30	3.46	3.46	2.46
대학원 박사 졸업	3.40	3.90	3.30	3.30
기타	3.75	3.25	3.25	3.25
합계	3.72	3.62	3.64	3.36

첫 번째 C1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11,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76, 대학원 석사 재학은 2.30, 대학원 석사 졸업은 3.68, 대학원 박사 재학은 3.30, 대학원 박사 졸업은 3.40, 기타는 3.75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유학생 지원 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가장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석사재학의 유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1,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53, 대학원 석사 재학은 2.16, 대학원 석사 졸업은 3.50, 대학원 박사 재학은 3.46, 대학원 박사 졸업은 3.90,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그 다음이 박사 졸업한 유학생이고, 이런 정책을 가장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석사재학 중인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4 질문인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3,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53, 대학원 석사 재학은 2.32, 대학원 석사 졸업은 3.50, 대학원 박사 재학은 3.46, 대학원 박사 졸업은 3.36,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정부의 사회복지와 정책에 가장 만족하고, 석사 재학 중인 유학생은 정부의 사회복지와 우대 정책에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5 질문인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3.96,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30, 대학원 석사 재학은 2.20, 대학원 석사 졸업은 3.00, 대학원 박사 재학은 2.46, 대학원 박사 졸업은 3.30,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려정책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의지를 심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 정부가 주는 장려정책이 이들의 귀국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학업상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D1	D2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4.05	4.37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4.00	4.07
대학원 석사 재학	2.48	2.88
대학원 석사 졸업	3.43	3.68
대학원 박사 재학	3.00	3.53
대학원 박사 졸업	4.60	4.40
기타	3.75	4.00
합계	3.73	4.04

첫 번째 D1 질문인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05,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4.00, 대학원 석사 재학은 2.48, 대학원 석사 졸업은 3.43, 대학원 박사 재학은 3.00, 대학원 박사 졸업은 4.60, 기타는 3.75로 나타났다. 박사 졸업 후 귀국한 이유는 가족의 영향이 컸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당분간 부양가족이 필요 없는 석사과정 유학생은 가족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두 번째 D2 질문인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4.37,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4.07, 대학원 석사 재학은 2.88, 대학원 석사 졸업은 3.68, 대학원 박사 재학은 3.53, 대학원 박사 졸업은

4.40, 기타는 4.00로 나타났다. 가족이 보고 싶어 귀국을 하고 싶은 유학생들은 비율은 박사졸업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학 재학생이었다.

다섯 번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학업상태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학업상태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3.91	3.59	3.98	3.87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3.76	3.15	3.46	2.61
대학원 석사 재학	2.34	1.76	2.38	2.24
대학원 석사 졸업	3.18	2.06	2.62	2.68
대학원 박사 재학	2.61	1.76	2.69	2.38
대학원 박사 졸업	3.20	1.70	2.30	2.10
기타	3.37	3.00	3.62	3.25
합계	3.52	3.04	3.51	3.36

첫 번째 E1 질문인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3.91,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76, 대학원 석사 재학은 2.34, 대학원 석사 졸업은 3.18, 대학원 박사 재학은 2.61, 대학원 박사 졸업은 3.20, 기타는 3.37로 나타났다. 유학 중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유학생은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석사 재학과 박사 재학의 유학생들 인종차별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생활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3.59,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15, 대학원 석사 재학은 1.76, 대학원 석사 졸업은 2.06, 대학원 박사 재학은 1.76, 대학원 박사 졸업은 1.70, 기타는 3.00로 나타났다. 유학생생활 중 종교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대학 재학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3.98,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3.46, 대학원 석사 재학은 2.38, 대학원 석사 졸업은 2.62, 대학원 박사 재학은 2.69, 대학원 박사 졸업은 2.30, 기타는 3.62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중국 문화와 유학국가의 문화 서로 배척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재학생과 석사 재학생 비율은 낮았다.

네 번째 E4 질문인 ‘나는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질문에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은 3.87,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은 2.61, 대학원 석사 재학은 2.24, 대학원 석사 졸업은 2.68, 대학원 박사 재학은 2.38, 대학원 박사 졸업은 2.10,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박사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외국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유학기간기준 교차분석 결과

첫 번째 ‘귀국의사’와 관련한 3개의 문항을 유학기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1> 귀국의사와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A1	A2	A3
1년 이하	4.31	4.37	4.43
1-3년	3.98	3.87	3.87
3-5년	3.88	3.76	3.76
5-10년	2.97	2.57	2.57
10년 이상	3.40	3.00	3.00
합계	3.82	3.68	3.68

첫 번째 A1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4.31, 유학기간 1-3년은 3.98, 유학기간 3-5년은 3.88, 유학기간 5-10년은 2.97,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40이다. 데이터로도 귀국 의사가 가장 강한 것은 유학 기간 1년 이하의 유학생이다. 5-10년 유학을 떠난 유학생들의 의향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4.37, 유학기간 1-3년은 3.87, 유학기간 3-5년은 3.76, 유학기간 5-10년은 2.57,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00이다. 유학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고 싶은 유학생은 유학기간 1년 이하, 당장 귀국하고 싶지 않은 유학생은 유학기간 5-10년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4.43, 유학기간 1-3년은 3.87, 유학기간 3-5년은 3.73, 유학기간 5-10년은 2.84,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40이다. 유학 전부터 유학 후 바로 귀국할 계획이 있는 유학생들은 유학 기간 1년 이하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유학기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2>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B3	B4
1년 이하	3.00	3.62
1-3년	3.74	3.73
3-5년	3.88	3.81
5-10년	2.50	2.73
10년 이상	4.40	3.40
합계	3.62	3.63

첫 번째 B3 질문인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00, 유학기간 1-3년은 3.74, 유학기간 3-5년은 3.88, 유학기간 5-10년은 2.50,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40이다. 유학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0년 이상 유학한 유학생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B4 질문인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62, 유학기간 1-3년은 3.73, 유학기간 3-5년은 3.81, 유학기간 5-10년은 2.73,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40이다. 장학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유학 3~5년차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유학기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3>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C1	C2	C4	C5
1년 이하	4.00	3.93	3.75	3.75
1-3년	3.89	3.70	3.78	3.69
3-5년	3.73	3.67	3.70	3.54
5-10년	2.92	3.00	2.89	2.36
10년 이상	4.20	4.20	4.00	3.40
합계	3.72	3.62	3.64	3.46

첫 번째 C1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4.00, 유학기간 1-3년은 3.89, 유학기간 3-5년은 3.73, 유학기간 5-10년은 2.92,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20이다. 중앙정부의 유학생 지원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이고, 가장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유학기간 5-10년의 유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93, 유학기간 1-3년은 3.70, 유학기간 3-5년은 3.67, 유학기간 5-10년은 3.00,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20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이고, 가장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유학기간 5-10년의 유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4 질문인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75, 유학기간 1-3년은 3.78, 유학기간 3-5년은 3.70, 유학기간 5-10년은 2.89,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00이다.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은 정부의 사회복지와 정책에 가장 만족하고, 유학기간 5-10년의 유학생은 정부의 사회복지와 우대 정책에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5 질문인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75, 유학기간 1-3년은 3.69, 유학기간 3-5년은 3.54, 유학기간 5-10년은 2.36,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40이다. 정부의 장려정책이 유학기간 1년 이하의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의지를 심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기간 5-10년의 유학생들에게 정부가 주는 장려정책이 이들의 귀국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네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유학기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4>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D1	D2
1년 이하	4.00	4.43
1-3년	3.74	4.13
3-5년	3.81	4.02
5-10년	3.26	3.60
10년 이상	4.20	4.60
합계	3.73	4.04

첫 번째 D1 질문인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4.00, 유학기간 1-3년은 3.74, 유학기간 3-5년은 3.81, 유학기간 5-10년은 3.26,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20이다.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은 국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귀국한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유학 기간 5-10년의 유학생들이다.

두 번째 D2 질문인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질문에 유학기

간 1년 이하는 4.43, 유학기간 1-3년은 4.13, 유학기간 3-5년은 4.02, 유학기간 5-10년은 3.60,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4.60이다. 가족이 보고 싶어 귀국을 하고 싶은 유학생들은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이고 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유학 기간 5-10년의 유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유학기간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5>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기간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1년 이하	3.75	2.93	3.62	3.25
1-3년	3.58	3.22	3.56	3.50
3-5년	3.63	3.27	3.71	3.53
5-10년	2.89	1.86	2.76	2.44
10년 이상	3.20	2.00	2.60	2.60
합계	3.52	3.04	3.51	3.36

첫 번째 E1 질문인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75, 유학기간 1-3년은 3.58, 유학기간 3-5년은 3.63, 유학기간 5-10년은 2.89,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3.20이다. 유학 국가 중 인종 차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유학 기간 1년 이하 유학생이고 유학 경력 5-10년의 유학생들은 유학 국가로서 인종차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황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2.93, 유학기간 1-3년은 3.22, 유학기간 3-5년은 3.27, 유학기간 5-10년은 1.86,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2.00이다. 종교문제로 유학생황에



서 어려움을 겪었던 비율이 가장 높았던 3~5년의 유학생에 비해 5~10년의 유학생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62, 유학기간 1-3년은 3.56, 유학기간 3-5년은 3.71, 유학기간 5-10년은 2.76,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2.60이다. 유학기간 3-5년의 유학생들이 중국 문화와 유학국가의 문화 서로 배척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기간 10년 이상의 유학생 비율은 낮았다.

네 번째 E4 질문인 ‘나는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질문에 유학기간 1년 이하는 3.25, 유학기간 1-3년은 3.50, 유학기간 3-5년은 3.53, 유학기간 5-10년은 2.44, 유학기간 10년 이상은 2.60이다. 유학기간 5-10년의 유학생들이 외국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유학기간 3-5년의 유학생은 외국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 유학국가기준 교차분석 결과

첫 번째 ‘귀국지사’와 관련한 3개의 문항을 유학국가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6> 귀국의사와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A1	A2	A3
한국	4.22	3.90	3.84
영국	3.93	3.79	3.69
미국	3.43	3.30	3.35
호주	3.88	4.00	3.81
캐나다	4.04	4.34	4.26
일본	3.02	2.76	3.07
독일	3.41	3.70	3.41
싱가포르	3.95	3.95	4.34
프랑스	4.20	3.80	3.90
뉴질랜드	4.00	3.14	3.42
기타	3.25	3.50	4.00
합계	3.82	3.68	3.71

첫 번째 A1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한국은 4.22, 영국은 3.93, 미국은 3.43, 호주는 3.88, 캐나다는 4.04, 일본은 3.02,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3.95, 프랑스는 4.20, 뉴질랜드는 4.00,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의사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인 반면 일본인은 귀국 의사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A2 질문인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질문에 한국은 3.90, 영국은 3.79, 미국은 3.30, 호주는 4.00, 캐나다는 4.34, 일본은 2.76, 독일은 3.70, 싱가포르는 3.95, 프랑스는 3.80, 뉴질랜드는 3.14, 기타는 3.50로 나타났다. 유학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려는 학생은 캐나다인 반면 일본인 유학생은 바로 귀국하려는 의사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A3 질문인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질문에 한국은 3.84, 영국은 3.69, 미국은 3.35, 호주는 3.81, 캐나다는 4.26, 일본은 3.07,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4.34, 프랑스는 3.90, 뉴질랜드는 3.42, 기타는 4.00로 나타났다. 유학 전부터 유학 후 곧바로 귀국할 예정인 비율은 싱가포르 유학생이 가장 높았고, 일본 유학생의 의향이 가장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유학국가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7>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B3	B4
한국	3.86	3.73
영국	3.24	3.34
미국	2.92	2.94
호주	3.96	3.70
캐나다	4.17	3.95
일본	3.15	3.71
독일	4.00	3.64
싱가포르	3.91	4.17
프랑스	3.80	3.90
뉴질랜드	3.57	3.14
기타	2.75	3.50
합계	3.62	3.63

첫 번째 B3 질문인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질문에 한국은 3.86, 영국은 3.24, 미국은 2.92, 호주는 3.96, 캐나다는 4.17, 일본은 3.15, 독일은 4.00, 싱가포르는 3.91, 프랑스는 3.80, 뉴질랜드는 3.57, 기타는 2.75로 나타났다. 유학 중 아르바이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캐나다이고, 미국에서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기타 제외).

두 번째 B4 질문인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질문에 한국은 3.73, 영국은 3.34, 미국은 2.94, 호주는 3.70, 캐나다는 3.95, 일본은 3.71, 독일은 3.64, 싱가포르는 4.17, 프랑스는 3.90, 뉴질랜드는 3.14, 기타는 3.75로 나타났다. 유학 중 장학금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싱가포르 유학생들이고, 미국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유학국가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8> 정책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C1	C2	C4	C5
한국	3.81	3.86	3.67	3.50
영국	3.79	3.62	3.65	3.62
미국	3.56	3.25	3.28	3.17
호주	3.88	3.96	3.88	3.92
캐나다	4.04	3.87	4.08	4.13
일본	3.00	2.92	2.86	2.44
독일	3.70	3.41	3.64	3.41
싱가포르	3.87	3.95	4.21	4.21
프랑스	4.05	4.00	4.15	3.50
뉴질랜드	4.42	4.42	4.14	3.85
기타	3.00	3.25	2.75	2.50
합계	3.72	3.62	3.64	3.46

첫 번째 C1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질문에 한국은 3.81, 영국은 3.79, 미국은 3.56, 호주는 3.88, 캐나다는 4.04, 일본은 3.00, 독일은 3.70, 싱가포르는 3.87, 프랑스는 4.05, 뉴질랜드는 4.42, 기타는 3.00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유학생 지원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유학국가가 뉴질랜드 있는 유학생들이고, 가장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유학국가가 일본 있는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C2 질문인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질문에 한국은 3.76, 영국은 3.62, 미국은 3.25, 호주는 3.96, 캐나다는 3.87, 일본은 2.92,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3.95, 프랑스는 4.00, 뉴질랜드는 4.42,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가장 인증하는 사람은 유학국가가 뉴질랜드 있는 유학생들이고, 가장 인증하지 않는 사람은 유학국가가 일본 있는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C4 질문인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질문에 한국은 3.67, 영국은 3.65, 미국은 3.28, 호주는 3.88, 캐나다는 4.08, 일본은 2.86, 독일은 3.64, 싱가포르는 4.21, 프랑스는 4.15, 뉴질랜드는 4.14, 기타는 2.75로 나타났다. 유학국가는 싱가포르 있는 유학생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와 정책에 가장 만족하고, 유학국가는 일본 있는 유학생들이 정부의 사회복지와 우대 정책에 가장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C5 질문인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질문에 한국은 3.50, 영국은 3.62, 미국은 3.17, 호주는 3.92, 캐나다는 4.13, 일본은 2.44,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4.21, 프랑스는 3.50, 뉴질랜드는 3.85, 기타는 2.50로 나타났다. 정부의 장려정책이 유학국가는 싱가포르 있는 유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의지를 심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국가는 일본 있는 유학생들에게 정부가 주는 장려정책이 이들의 귀국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네 번째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2개의 문항을 유학국가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29> 가족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D1	D2
한국	3.71	4.13
영국	3.58	3.86
미국	3.59	4.07
호주	4.03	4.00
캐나다	4.30	4.13
일본	3.44	3.89
독일	3.64	3.88
싱가포르	4.08	4.30
프랑스	3.55	4.10
뉴질랜드	3.42	4.00
기타	4.00	3.50
합계	3.73	4.04

첫 번째 D1 질문인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질문에 한국은 3.71, 영국은 3.58, 미국은 3.59, 호주는 4.03, 캐나다는 4.30, 일본은 3.44, 독일은 3.64, 싱가포르는 4.08, 프랑스는 3.55, 뉴질랜드는 3.42, 기타는 4.00로 나타났다. 캐나다 유학생들은 국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귀국한 영향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뉴질랜드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D2 질문인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질문에 한국은 4.13, 영국은 3.86, 미국은 4.07, 호주는 4.00, 캐나다는 4.13, 일본은 3.89, 독일은

3.88, 싱가포르는 4.30, 프랑스는 4.10, 뉴질랜드는 4.00, 기타는 3.50로 나타났다. 가족이 보고 싶어 귀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싱가포르 유학생들이고 이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영국 유학생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4개의 문항을 유학국가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0> 문화적 요인과 관련한 유학국가교차분석 결과

	E1	E2	E3	E4
한국	3.44	2.69	3.39	3.27
영국	3.55	3.06	3.31	3.37
미국	3.48	2.79	3.28	3.02
호주	3.92	3.63	4.00	3.74
캐나다	4.00	4.21	4.21	4.08
일본	2.92	2.15	3.02	2.81
독일	3.41	3.41	3.41	3.47
싱가포르	4.08	4.00	4.17	3.78
프랑스	3.75	3.30	3.85	3.55
뉴질랜드	2.85	2.71	3.14	3.14
기타	3.00	3.00	3.00	3.25
합계	3.52	3.04	3.51	3.36

첫 번째 E1 질문인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질문에 한국은 3.44, 영국은 3.55, 미국은 3.48, 호주는 3.92, 캐나다는 4.00, 일본은 2.92,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4.08, 프랑스는 3.75, 뉴질랜드는 2.85, 기타는 3.00로 나타났다. 유학 국

가 중 인종 차별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싱가포르 유학생들이고 뉴질랜드 유학생들은 유학 국가로서 인종차별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E2 질문인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생활에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질문에 한국은 2.69, 영국은 3.06, 미국은 2.79, 호주는 3.63, 캐나다는 4.21, 일본은 2.15,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4.00, 프랑스는 3.30, 뉴질랜드는 2.71, 기타는 3.00로 나타났다. 종교문제로 유학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캐나다 있는 유학생들에 비해 일본 있는 유학생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E3 질문인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질문에 한국은 3.39, 영국은 3.31, 미국은 3.28, 호주는 4.00, 캐나다는 4.21, 일본은 3.02, 독일은 3.41, 싱가포르는 4.17, 프랑스는 3.85, 뉴질랜드는 3.14, 기타는 3.00로 나타났다. 캐나다 있는 유학생들이 중국 문화와 유학국가의 문화 서로 배척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있는 유학생들 비율은 낮았다.

네 번째 E4 질문인 ‘나는 유학생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질문에 한국은 3.27, 영국은 3.37, 미국은 3.02, 호주는 3.74, 캐나다는 4.08, 일본은 2.81, 독일은 3.47, 싱가포르는 3.78, 프랑스는 3.55, 뉴질랜드는 3.14, 기타는 3.25로 나타났다. 캐나다 있는 유학생들이 외국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고, 일본 있는 유학생들은 외국인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 3절 다중회귀분석 결과

#### 1.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 1) 신뢰도 검증

본 연구 모형의 신뢰도와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신뢰성 검증(reliability)을 실시하였다. 내적 신뢰성 검증은 동일 개념에 의한 측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할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가능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론바흐의 알파(Chronbach's  $\alpha$ )계수를 신뢰성 분석에 활용하는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0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본 연구의 활용한 변수들의 Chronbach's  $\alpha$ 값의 경우, 귀국 요인은 0.835, 경제적 요인 0.701, 정책적요인 0.914, 가족적 요인 0.751, 문화적 요인 0.877로 모든 변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신뢰성은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신뢰성 검증결과

구분	요인	Cronbach's $\alpha$
종속변수	귀국 요인	0.835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	0.701
	정책적 요인	0.914
	가족적 요인	0.751
	문화적 요인	0.877

##### 2)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고 하나의 요인에 높게 적재되는 변수를 줄이기 위해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표본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0.5 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의 활용한 변수들에 대한 KMO값은 0.931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32> 측정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정책요인	문화요인	귀국요인	가족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1	0.816	0.290	0.194	0.097	0.215
정책요인2	0.808	0.218	0.187	0.281	0.190
정책요인3	0.778	0.243	0.250	0.156	0.195
정책요인4	0.680	0.329	0.306	0.140	0.238
문화요인1	0.219	0.777	0.206	0.267	0.059
문화요인2	0.223	0.762	0.202	0.160	0.211
문화요인3	0.306	0.758	0.141	0.168	0.176
문화요인4	0.242	0.722	0.224	0.064	0.320
귀국요인1	0.235	0.308	0.811	0.149	0.175
귀국요인2	0.254	0.148	0.801	0.261	0.158
귀국요인3	0.394	0.301	0.558	0.294	-0.052
가족요인1	0.198	0.252	0.151	0.802	0.199
가족요인2	0.198	0.173	0.342	0.770	0.115
경제요인1	0.281	0.351	0.029	0.073	0.757

경제요인2	0.244	0.165	0.232	0.262	0.755
고유값	3.127	3.031	2.188	1.749	1.612
분산비율	20.847	20.207	14.584	11.659	10.750
누적분산	20.847	41.054	55.638	67.297	78.047

KMO=0.931 Bartlett=3035.69 p=0.000

본 연구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귀국 요인의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0.811-0.558, 경제요인은 0.757-0.759, 정책적 요인은 0.816-0.680, 가족적 요인은 0.802-0.770, 문화적 요인은 0.777-0.722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귀국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 가족요인, 문화요인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요인 간 상관계수가 0.7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상관관계 분석 결과

구분	정책요인	문화요인	귀국요인	가족요인	경제요인
귀국요인	1.000				
경제요인	.372***	1.000			
정책요인	.573***	.569***	1.000		
가족요인	.478***	.376**	.463**	1.000	
문화요인	.523***	.567***	.637***	.469***	1.000

주: \*p<0.05, \*\*p<0.01, \*\*\*p<0.001

## 2. 다중회귀분석 결과

귀국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통제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업상태, 결혼상태, 유학기간, 전공, 유학국가를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사용하였으며, 기준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별 기준변수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고, 나이의 경우 ‘20세 미만’을, 학업상태의 경우 ‘대학교 재학’을, 결혼상태의 경우 ‘기혼’을, 유학기간의 경우 ‘1년 미만’, 전공의 경우 ‘인문·사회’, 유학국가의 경우 ‘한국’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34> 다중회귀분석 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568	0.489		3.204	0.002

경제적 요인		-0.105	0.052	-0.113	-2.011	0.045*
정책적 요인		0.274	0.060	0.280	4.567	0.000***
가족적 요인		0.347	0.054	0.325	6.414	0.000***
문화적 요인		0.222	0.065	0.227	3.395	0.001**
성별	남성	-0.039	0.088	-0.018	-0.437	0.662
나이	20세이상- 25세미만	-0.083	0.158	-0.035	-0.523	0.601
	25세이상- 30세미만	-0.300	0.211	-0.109	-1.421	0.156
	30세이상- 40세미만	-0.323	0.354	-0.054	-0.914	0.362
학업 상태	대학교 졸업	0.288	0.251	0.052	1.146	0.253
	대학원 석사 재학	-0.128	0.184	-0.042	-0.693	0.489
	대학원 석사 졸업	0.034	0.263	0.007	0.130	0.897
	대학원 박사 재학	0.662	0.267	0.120	2.477	0.014*
	대학원 박사 졸업	0.340	0.322	0.054	1.055	0.292
	기타	0.219	0.284	0.031	0.770	0.442
결혼상태	미혼	0.005	0.281	0.001	0.017	0.986
유학 기간	1-3년	-0.095	0.209	-0.042	-0.455	0.649
	3-5년	-0.160	0.210	-0.071	-0.761	0.447
	5-10년	-0.526	0.235	-0.156	-2.240	0.026*
	10년 이상	-0.834	0.429	-0.095	-1.947	0.053

전공	자연과학계열	-0.030	0.158	-0.008	-0.187	0.852
	공학계열	-0.072	0.140	-0.026	-0.513	0.609
	예체능계열	0.072	0.157	0.021	0.459	0.647
	의학/간호/수의/약학계열	-0.183	0.174	-0.047	-1.054	0.293
	교육계열	0.459	0.294	0.062	1.563	0.119
	법학계열	-0.036	0.277	-0.005	-0.130	0.897
	경영계열	0.074	0.139	0.026	0.532	0.595
	기타계열	-0.030	0.226	-0.006	-0.133	0.894
유학국가	영국	-0.265	0.167	-0.070	-1.583	0.115
	미국	-0.423	0.168	-0.127	-2.525	0.012*
	호주	-0.348	0.177	-0.089	-1.968	0.050*
	캐나다	-0.223	0.186	-0.053	-1.201	0.231
	일본	-0.623	0.152	-0.185	-4.107	0.000***
	독일	-0.492	0.205	-0.101	-2.398	0.017*
	싱가포르	-0.348	0.192	-0.083	-1.814	0.071
	프랑스	-0.168	0.198	-0.037	-0.852	0.395
	뉴질랜드	-0.295	0.300	-0.040	-0.983	0.327
	기타국가	-0.092	0.403	-0.009	-0.229	0.819
R <sup>2</sup>		0.592		N		311
F		13.150		유의확률		0.000

주: \*p<0.05, \*\*p<0.01, \*\*\*p<0.001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문화적 요

인 모두가 귀국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의 경우  $\beta$ 값이  $-0.105$ 로 경제적 요인은 귀국의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귀국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귀국하지 않을 의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른 요인인 정책적 요인, 가족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3가지 요인으로 인해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적 요인의 경우  $\beta$ 값  $0.347$ 로 정책적 요인, 문화적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유학생들의 경우 가족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 의사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나이’, ‘결혼상태’, ‘전공’은 귀국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상태’의 경우 박사재학생이 대학학부 재학생보다 귀국의사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유학기간’의 경우에도 유학기간이 ‘5년-10년’인 유학생의 경우 귀국의사가 도리어 없음을 알 수 있다( $\beta = -0.526$ ).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유학기간이 길어질 경우 유학국가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여 중국으로 돌아가 적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또한 유학국가에 있어 한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유학생의 경우 중국으로 상대적으로 귀국할 의사가 없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V. 결론

### 제 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후 귀국에 대한 생각은 유학 전이 유학 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학생 정책과 관련하여 유학생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학생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과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높게 나타나 유교적은 문화 형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으로 현지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에 의한 차별은 인종차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유학 후 중국으로의 귀국의사와 유학 중 경제적인 이유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중국 중앙정부의 귀국 후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복지 혜택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해야겠다는 생각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이 인종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의 조직문화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20세 이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연령 집단보다 20대 집단이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20세 이하는 귀국 후 중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20세 이하와 30세 이상에 비해서 20대 그룹은 유학 후 중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하가 경제적으로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정책과 관련하여 20세 이하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잘 알고, 지원정책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와 그리움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20세 이하와 30세 이상에서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20세 이하가 인종차별과 종교에 의한 차별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에서는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을 느꼈다는 것이 평균이하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유학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도 20세 이하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세 이상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상태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유학 후 귀국할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귀국의사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중국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에 알고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여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박사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이 가족적 요인은 낮게 나타내고 있었다. 문화적인 요

인과 관련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은 문화적 차별을 느꼈다고 대답한 경우가 낮게 나타난 반면에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유학생들은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유학기간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유학기간이 짧을수록 귀국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10년 이상의 유학기간이 된 경우 평균정도의 귀국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1년 이하보다는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진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 10년의 유학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10년 이상의 유학기간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유학기간 1년 미만의 유학생과 10년 이상의 유학생들이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에서 1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유학기간 1년 이하와 10년 이상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족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문화적으로 1년 이하의 유학생들이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의 유학경험을 가진 집단들은 현지의 문화와 친구들에 대한 차이를 평균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학국가를 기준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싱가포르로 유학 온 학생들이 중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일본으로 간 유학생들이 귀국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로 유학 간 학생들이 가장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로 유학 간 학생들이 중국의 귀국 정책에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으로 유학 간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캐나다로 유학 간 학생들이 가족에 대한 부양생각이 가장 컸으며, 뉴질랜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싱가포르의 유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국으로의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문화적으로 싱가포르 유학생이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뉴질랜드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국가의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있는 유학생들이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일본의 유학생들이 차이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 2절 정책제언 및 연구의 한계

중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올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유치하는 것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인력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적·정책적인 뒷받침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의 유학생 우대정책은 해외 유학생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유학생들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취업을 했을 경우, 공공부문에서는 복지제도 및 정착을 위한 복지혜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금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우대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금 이외에 생활환경 및 복지혜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 유학생들의 취업 등에 있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

방이나 소도시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우대정책 및 지원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지방정부차원에서 해외 유학생 일자리 취업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들의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정부의 경우 유학생들에 대한 우대정책이나 지원이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유학생 지원정책들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홍보 플랫폼을 구축 및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부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해외 유학생들의 경우 가족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이 귀국의사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볼 때,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유학생들의 경우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외로움이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 타국에서 느끼는 고충을 수집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같은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함께 유학생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국가 영사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유학생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장학생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제적 요인이 귀국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유학생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국가 장학생 선발을 확대하고 유학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에 나가있는 중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영향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보다 좋은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향후 지금 보다 다양한 국가에 유학중인 유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표본의 샘플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만 실시하였으나, 각국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하도록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김혜련(2020). 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 문화연구>. 62: 145 - 158.
- 허대녕 외(2014). 미국 과학기술분야 Top 5 대학 유학생의 귀국 의사결정 요인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17(1): ,264 - 288.
- 허대녕. (2010).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출,입 동기 분석 및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촉진 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439-463.
- 김영란 외(2015).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 전략수립연구: 중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 모색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양미경(2017). 인재순환 관점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정책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相郁(2008). 중국 고급인력의 잠재적 이동요인에 관한 연구: 天津市 사례. <현대중국연구>. 10(1): 204-242.
- 심정민 외(2010). 해외 고급과학기술두뇌의 연구생산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거 이론적 접근방법을 기반으로.<한국혁신학회지>.5(2):25-45.
- 조가원,(2013). 해외 고급 전문인력 유치 현황과 전략. <과학기술정책> (09)192:144-154.
- 이진영 외(2014). 독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제도와 정책 연구한국에의 시사점. <현대정치연구>. 7(1):107-139.
- 김한나 외(2016).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비교 연구.<아시아교육연구>. 17(4):311-337.
- 이진영 외(2014). 재외동포 우수인재 유치정책재외독일인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8(1):145-168.

- 이창근 외(2016). 해외과학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9(2):395-415.
- 문만용. (2006). 한국의 '두뇌유출' 변화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의 역할. 한국문화, 37, 229-261.
- 구자역, 박승재, 김한나. (2014).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정부의 천인계획의 시사점.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면. (2018). 과학기술인력 두뇌유출에 관한 국가인재개발 정책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하중, 양기근, 강창민. (2004). 고급과학기술인력의 두뇌유출 순환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2), 143-174.
- 슈쿠로바. (2021). 우즈베키스탄 우수인재의 모국귀환에 관한 연구 -한국 대학원 유학경험자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디아스포라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장상운. (2016). 중국의 창업 열풍과 지원환경. The HRD review, 2016(1),166-175.
- 장영민. (2021). 1950년대 도미유학과 유학생의 미귀국. 한국근현대사연구. 96: 303-339.
- 정내양, 이준영, 허대녕. (2014). 재외 이공계 학문후속세대의 귀국 의사결정 영향요인. 한국정책과학회보, 18(2), 143-168.

## 2. 해외 문헌

- 王立(2005). 海歸搜索行動"調查顯示:國內經濟持續高增長是留學人員回國的最大理由. <中國科技投資>. 2005(1):64-64.
- 楊林(2010). "海歸"人才增長特質趨勢分析:對深圳經濟特區留學人員歸國情況調查分

- 析. <中國統計>. 000(009):52-54.
- 王露茜(2013). 留美博士的歸國意向與職業取向.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魏華穎(2016). 我國在美留學生回國意願和就業意向特徵分析.<中國行政管理>. 000(009):153-155.
- KOSER K,SALT J(1997). The Geography of Highly Skilled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4):285-303.
- LEE J J. KIM D(2010). Brain Gain or Brain Circulation U.S. Doctoral Recipients Returning to South Korea. <High Education>.59:627-643.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SALT J(1992). Migration Processes Among the Highly Skilled i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2):484-505.
- USHKALOV I G,MALAKHA I A(2000). The “Brain Drain” as a Global Phenomenon and Its Characteristics in Russia. <Russian Education And Society>. (12):18-34.
- 何勇(2015). 未來30年全球城市人才流動与集聚的趨勢預測. <中國人力資源開發>(1):75-80.
- 彭曉嬌(2020). 人文社科類博士后學術發展及其影響因素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毛月(2019). “新聲代海歸”創業意向影響机制研究.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 童江濤(2014). 歸國留學人員在滬就業性別差异影響因素分析.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謝卉琪(2017). 高校自費留學生回國就業的適應性研究. 安徽大學 碩士學位論文.
- 崔源(2010). 我國海外人才回流現狀、問題及對策研究.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魏華穎(2014). 海外留學歸國人員就業的微觀影響因素的實証研究. <中國行政管理



理>. (10):84-86

- 劉蓉洁(2010). 高校“海歸”教師生存环境与生存狀態研究:以上海四所“985”高校“海歸”教師爲例的分析. 上海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建林(2006). 利益与選擇:当代中國留美學生及其与中國的關係. 暨南大學 博士學位論文
- 王建華(2004). 中國出國留學教育与留學人才外流回歸現象研究. 浙江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 戰湛(2017). 中國自費留學行爲研究:基于教育消費的視角.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李萌(2013). 創業型留學歸國人員滿意度及人才引進對策研究:基于天津市三區的調查. 天津大學 碩士學位論文.
- 劉小璞(2013). 我國海外人才回流的制約因素及政策建議. 湖北大學 碩士學位.
- 梁慕華(2020). 來華留學生學習動机、態度及學習意向調查研究:以浙江越秀外國語學院爲例. 湖北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 李玥(2014). 來華非洲留學生畢業意向的影響因素研究:以浙江師範大學非洲留學生爲例.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魏華穎(2016). 我國在美留學生回國意愿和就業意向特征分析. <中國行政管理CPA專版>. (09):153-155.
- 賴繼年(2012). 留英生与当代中國:以回國人員爲中心. 南開大學 博士學位論文.
- 新東方(2021). 2021中國留學白皮書.

##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boundarie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broken down and the exchange of talents has become active. Excellent students studying abroad, in many cases, are not from their home countries but their resident countries of study, and China is also facing this problem. Observing and analyzing the intention of overseas students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ttracting the best domestic talents and on the academic and 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in the long ru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higher thoughts about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y after studying abroad than before studying abroad after studying abroad. However, by and large, Chinese students have the idea of returning to China after studying abroad. According to the survey, it is also more than average to work hard or part-time to raise money for tuition and to get a scholarship. It can be see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recognizes the need to support international students to return to China in terms of China's foreign student policy. In addition, the idea that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support their families and the idea that they want to see their families who stay in China are very high, which shows that the cultural pattern of staying in school still exists. The survey indicates that culturally, the experience of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local area is above average. However, religious discrimination is lower than racial discrimination.

Keyword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alent acquisition, brain drain

**【부록】**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	--	--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팽호낙 학생입니다. 저의 석사과정 학위논문 주제로 중국 유학생들이 유학 후 귀국의사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해외 중국유학생들의 귀국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응답에 소요시간은 약 5분 정도이니,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신 내용을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팽호낙(phaoruo@gmail.com)

지도교수: 김 주 경(agelead@jejunu.ac.kr)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 ① 20세 미만      ② 20세 이상 - 25세 미만      ③ 25세 이상 - 30세 미만  
④ 30세 이상 - 40세 미만      ⑤ 40세 이상

SQ3. 현재 귀하의 학업상태(재학상태)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① 대학교 재학(전문대 포함)    ②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③ 대학원 석사 재학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재학            ⑥ 대학원 박사 졸업  
⑦ 기타

SQ4.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 ① 미혼            ② 결혼

SQ4-1 결혼은 하신 경우 현재 귀하의 자녀수는?

- ① 없음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3명 이상

SQ5. 귀하의 첫 유학 경험은 어느 연령대입니까?

- ① 20세 이하      ② 20-25세      ③ 25-30세      ④ 30세 이상

SQ6. 귀하는 유학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1년 이하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SQ7. 귀하의 전공은?

- ① 인문사회계열            ② 자연과학계열            ③ 공학계열  
④ 예체능계열            ⑤ 의학/간호/수의/약학계열    ⑥ 교육계열(교육학계열)  
⑦ 법학계열            ⑧ 경영계열            ⑨ 기타

SQ8. 현재 귀하께서 유학하고 있는 국가는?

- ① 한국            ② 영국            ③ 미국            ④ 호주            ⑤ 캐나다

⑥일본

⑦독일

⑧ 싱가포르

⑨ 프랑스

⑩뉴질랜드

⑪기타



지금부터는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시해드리는 질문을 잘 읽고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Part 1. 귀국 의사에 관한 항목

■ 먼저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귀국 의사’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후(유학을 마친분 포함)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귀하께서는 유학을 마친 직후 바로 중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유학 전 유학을 마치면 바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할 의향이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Part 2. 경제적 요인에 관한 항목

■ 다음은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경제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학 중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3. 정책적 요인

■ 다음은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정책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2. 유학생의 귀국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유학생 귀국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중국정부의 귀국 장려정책이 귀국결심에 영향을 미쳤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4. 가족적 요인

■ 다음은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가족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중국에 남아있는 가족이 매우 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5. 문화적 요인

■ 다음은 중국유학생 귀국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관련한 문화적 요인에 관한 항목입니다.

구분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유학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종교문제로 인해 유학생활에 곤란을 겪은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유학국가의 조직문화가 중국의 조직문화와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 친구들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①	②	③	④	⑤

## Part 6. 기타항목

■ 본 설문에 대한 내용이나, 중국유학생의 귀국요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问卷中所调查的所有内容除统计目的外，绝不用于其他目的并为其保密。

ID

-

## 关于中国留学生回国意愿影响因素分析的问卷调查

您好。

我是济州大学一般研究生院行政学科在读硕士彭皓若，我正在研究我的硕士学位论文主题相关的中国留学生留学后回国意愿的影响诱因。

通过分析很多海外中国留学生的回国影响因素，可以作为今后的政策资料使用。

本问卷调查结果只用于本研究的实证分析的基础资料。问卷调查所需的时间约为5分钟，请按照您的想法进行回答。

本调查问卷的内容及个人信息根据统计法第33条（保密等）和第34条（统计制定事务从事者等义务）彻底保密。

谢谢。

2022年 4月

济州大学 一般大学院 行政学科 彭皓若(phaoruo@gmail.com)

指導教授: 金 周 經(agelead@jejunu.ac.kr)

### SQ. 应答者选定问题

SQ1. 您的性别是？

- ① 男性 ② 女性

SQ2. 您的年龄是？

- ① 未满20岁                      ② 20岁-25岁                      ③ 25岁-30岁

- ④ 30岁-40岁                      ⑤ 40岁以上

SQ3. 目前您属于哪个学业阶段？

- ① 大学就读(含大专)    ② 大学毕业(含大专)    ③ 硕士在读  
④ 硕士毕业                      ⑤ 博士在读                      ⑥ 博士毕业  
⑦ 其他

SQ4. 您的婚姻状况为？

- ① 未婚                      ② 已婚

SQ4-1 如果您结婚了，您的子女数量为？

- ① 无                      ② 1名                      ③ 2名                      ④ 3名                      ⑤ 3名以上

SQ5. 您的初次留学处于哪个年龄阶段？

- ① 20岁以下    ② 20岁-25岁    ③ 25岁-30岁    ④ 30岁以上

SQ6. 您留学多久了？

- ① 1年以下    ② 1-3年    ③ 3-5年    ④ 5-10年    ⑤ 10年以上

SQ7. 您的专业是？

- ① 人文社会领域    ② 自然科学领域    ③ 工学领域  
④ 艺体能领域    ⑤ 医学/看护/兽医/药学领域    ⑥ 教育领域(教育学领域)  
⑦ 法学领域    ⑧ 经管领域    ⑨ 其他

SQ8. 您的留学国家为？

- ① 韩国    ② 英国    ③ 美国    ④ 澳大利亚  
⑤ 加拿大    ⑥ 日本    ⑦ 德国    ⑧ 新加坡  
⑨ 法国    ⑩ 新西兰    ⑪ 其他

现在开始提问您关于中国留学生回国意向的影响因素的意见。  
请仔细阅读您提出的问题，并按照您的看法如实回答。

## Part 1. 回国意愿

■ 首先是有关中国留学生回国意愿的影响因素的"回国意愿"的题目。

题目	完全不是	大抵不是	一般	大概是	非常认同
1.您留学结束后（包括留学结束后的人）有回国的意向吗？	①	②	③	④	⑤
2.您留学结束后有立即回国的意向吗？	①	②	③	④	⑤
3.您在留学前就有‘留学结束后直接回国’的意向吗？	①	②	③	④	⑤

## Part 2. 经济因素

■ 以下是有关中国留学生回国意向的影响因素的"经济因素"的题目。

题目	完全不是	大抵不是	一般	大概是	非常认同
1.我在留学期间为了挣学费等打过工。	①	②	③	④	⑤
2.我为获得奖学金做了很多努力。	①	②	③	④	⑤

### Part 3. 政策因素

■ 以下是有关中国留学生回国意向的影响因素的‘政策因素’的题目。

题目	完全不是	大抵不是	一般	大概是	非常认同
1. 为了吸引留学生回国，中央政府有相应的支援政策。	①	②	③	④	⑤
2. 为了吸引留学生回国，各省、市政府等地方政府也制定了相关的支援政策。	①	②	③	④	⑤
3. 为了鼓励留学生回国提供多种社会福利优惠政策。	①	②	③	④	⑤
4. 中国政府的奖励政策给了留學生回國的決心。	①	②	③	④	⑤

### Part 4. 家庭因素

■ 以下是有关中国留学生回国意愿的影响因素的‘家庭因素’的题目。

题目	完全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概是	非常认同
1. 回国是为了赡养在中国的家人。	①	②	③	④	⑤
2. 回国是因为非常想念留在中国的家人。	①	②	③	④	⑤

## Part 5. 文化因素

■ 以下是有关中国留学生回国意向的影响因素的‘文化因素’的题目

题目	完全不是	大抵不是	普通	大概是	非常认同
1. 留学国家有种族歧视。 .	①	②	③	④	⑤
2. 曾因宗教问题在留学生活上遭受困扰。	①	②	③	④	⑤
3. 留学国家的组织文化与中国的组织文化相互排斥。 。	①	②	③	④	⑤
4. 留学期间与外国朋友的交往让我感到有压力。	①	②	③	④	⑤

## Part 6. 其他

■ 如有对本问卷内容或对中国留学生回国因素提出意见的部分，请自由记述。